



광림 뉴스레터

KWANGLIM NEWSLETTER



헌혈 통해 이웃과 사회에 사랑을 전하다

4월 10일 부활절 기념 헌혈 행사, 목회자와 성도들 참여

부활절을 맞아 4월 10일(토) 광림교회는 대한적십자사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부활절 기념 사랑의 헌혈'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얻게 된 생명을 헌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웃과 사회에 전하기 위함이다.

헌혈행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광림교회 주차장에서 실시했다. 혈액원 관계자는 헌혈할 수 있는 사람은 16세에서 65세까지 가능하며, 평소에 헌혈을 해 온 사람은 69세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행사 취지에 대해 "코로나19는 헌혈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다시 알게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헌혈량이 줄어 위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에 광림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한다는 마음으로 사랑의 헌혈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이날 헌혈에 동참한 광

림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을 일일이 격려하고,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서울남부혈액원에도 감사의 인사를 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 시대를 겪으면서 흔히 말하는 불안과 염려, 걱정과 근심, 고독과 소외감이라는 사회 병리적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가 세상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돌봐야 할 것이다. 오늘 행하는 헌혈운

동을 통해 예수님의 자기희생과 내려놓음, 사랑과 화목의 정신이 온 세상에 가슴 깊이 전달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전했다.

헌혈에 동참한 김학용 집사(10교구)는 "교회가 나서서 이렇게 작은 도움이나마 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 헌혈하는 나의 피 한 방울이 한 생명을 살리는데 보탬이 된다는 것을 생각하니 매우 값진 일이라 생각한다. 이번 기회로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더 많은 사람이 헌혈에 동참하여 주님의 사랑이 좀 더 세상에 많이 퍼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편의 헌혈을 응원하기 위해 두 아들과 함께 온 최호산나 집사(10교구)는 "김 집사는 지금까지 33번 헌혈을 하였으며, 최근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했는데 선한 행사에 앞장서는 광림교회에서 헌혈을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자랑스런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아이들과 함께 왔다"고 전했다. 광림교회는 앞으로도 헌혈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동참할 계획이다. 선한 사업에 앞장서는 광림교회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세상과 한국교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광림 선한소비운동', '광림 선한나눔운동' 등을 전개하고, 코로나19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시설로 광림세미나하우스를 제공한 바 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참된 평강을 소유한 삶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빌립보서 4장 9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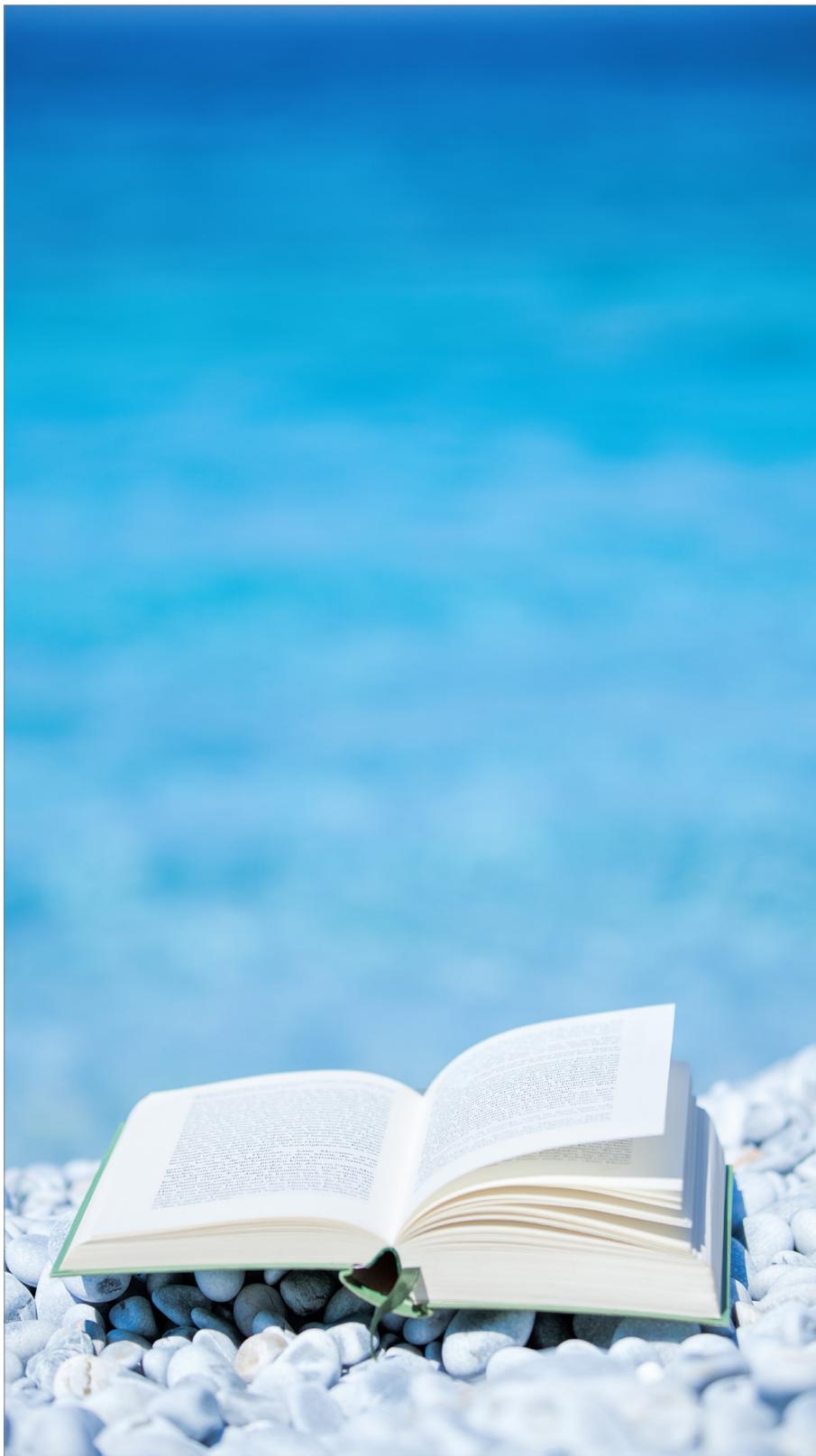
우리는 많은 후회들로 인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것에 대한 후회,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한 후회 등 다양한 후회들이 우리 인생에 흔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후회가 많아지면 자기 불신이 생깁니다. 나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믿지 못할 때 결국 그 인생은 고독과 절망이 찾아옵니다. 인생에서 겪는 고독과 절망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갈 때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평안은 어떤 물질, 명예, 좋은 일, 든든한 무언가와 같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평강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얻어지며, 그 평강은 내 안에서 흘러나와 이웃까지 참 기쁨과 생명을 얻도록 만듭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말씀을 통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주님께 맡길 때 얻게 되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참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평강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된 평강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옵니다. 평강은 근본적으로 관계의 문제,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이 생겨납니다.

사도 바울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염려는 불신과 짐착에서 비롯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가 많으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단히게 됩니다. 시선이 문제에만 머물다보면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해결된 것보다 해결되지 않는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문제에 집착하면 결국 은혜를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염려는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막연한 걱정과 근심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마 6:31-32)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이방인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 신뢰가 생기고, 이로 인해 막연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갈 때 참된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9절
 4.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7.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9.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둘째, 참된 평강은 감사와 기도로부터 옵니다.

성도의 삶은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생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감사가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의 방향을 늘 하나님께 두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배후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E. M. 바운즈는 “감사는 과거를 돌아보게 만들며, 기도는 미래를 내다보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와 기도가 있는 삶만이 현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감사와 기도는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감사와 기도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과거에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해보시고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함께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본문 7절은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감사와 기도의 삶을 통해 참된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참된 평강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부터 옵니다.

본문 9절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배우는 것’은 이성적이며 논리적인 것으로,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받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곧,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수락을 뜻합니다. ‘듣는 것’은 의지의 표현으로 믿음을 가지고서 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는 것’은 체험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다시 말해 이성적, 감성적, 의지적,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들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순종입니다. 아는 것을 삶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행위의 결과나 대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순종으로 행할 때 진정한 평강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실천할 때 참된 평강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을 덮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염려와 걱정이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언제나 감사와 기도를 드리며, 말씀을 온전히 삶에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 정 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빛의숲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 02-2056-5771

하나님 말씀 안에서 리더의 역할 강조

〈남선교회총연합회 리더십세미나〉 4월 18일 개최



2021년 남선교회 리더십세미나가 4월 18일 주일 3부 예배후 남선교회총연합회 임원 및 연합회장, 교구장, 개체선교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림사회봉사관 4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되었다.

예전과는 달리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테이블 당 최소의 인원이 참석하였으며, 식사 대신에 떡과 선물로 대체되었다.

이날 말씀을 전한 김정석 담임목사는 “현재 세계는 종교다원주의로 인하여 전통 기독교 가치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원칙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스티븐 코비의 원칙중심의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통해 “리더는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서비스 지향적으로 남을 우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야 하며, 다른 사람의 약점 보다는 강점이나 잠재력을 봐야 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며, 아브라함처럼 인생을 모험적으로 살아가야 한다. 모든 일을 다 잘 할 수 없으니까 시너지를 활용해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하며 자기 발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편지가 되고 메시지가 되어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어진 순서에서는 남선교회가 올해부터 선교회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명한 스테반, 디모데, 바울, 웨슬리 등 각각의 센터장들이 개체 선교회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센터장들은 남선교회 전반의 활동과 각자의 선교회가 펼쳐가야 할 주요활동을 열거하고, 회원 가정에 대한 심방요령이나 경조사 발생 시 대처, 그리고 새신자를 선교회원으로 영입하기 위한 노력 등 개체선교회 운영에 대한 안내를 했다.

남선교회총연합회 회장 박기연 장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모임을 갖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개체 선교회가 활성화 되어야 교구가 살아나며, 이로 인해 각 선교구 나아가 남선교회가 발전하고 그것이 광림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진다. 개체 선교회의 모임이 정상화 되어 있으면 교회가 본래의 모습으로 예배를 하게 되었을 때 빠른 시일내 이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포토 뉴스



장애인주일 예배
4월 18일 주일예배에서 전지원 성도(사랑부)가 특송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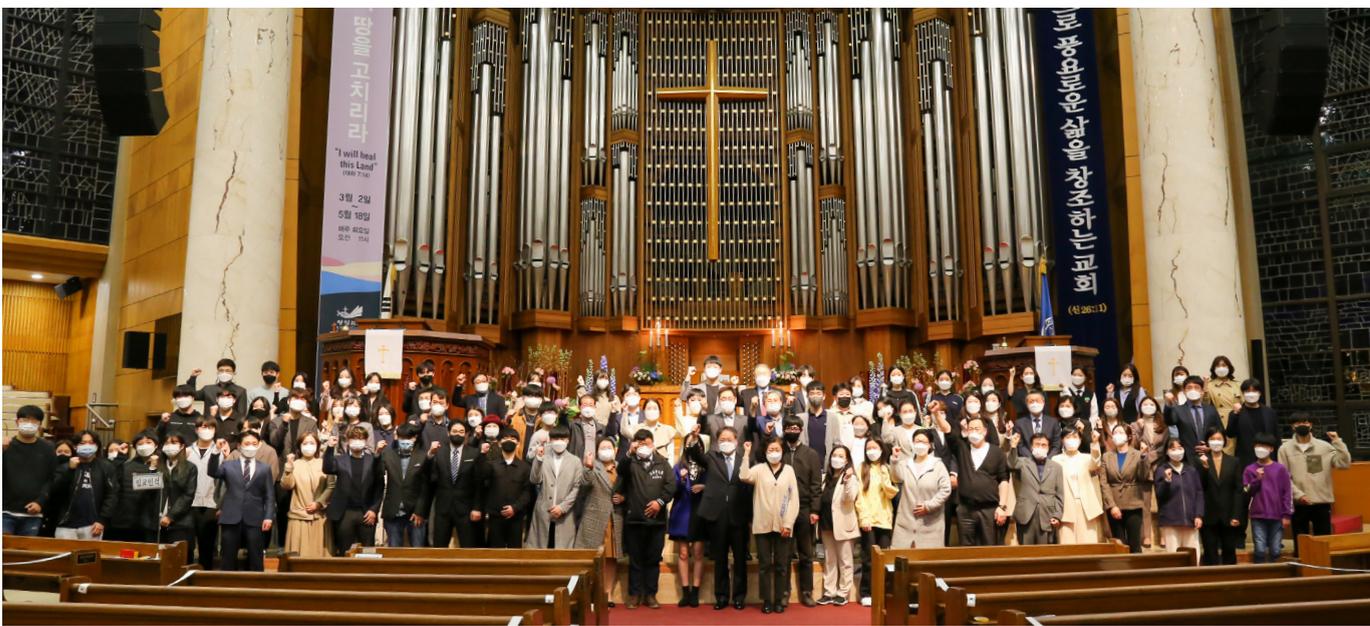
선교바자회
여선교회 바자회가 4월 25일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남연회 남선교회장 이취임예배
4월 17일 사회봉사관에서 서울남연회 남선교회장 이취임식이 있었다.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 되었습니다!”

〈2021년 1차 세례예식〉 4월 18일 주일, 김정석 담임목사 집례로 69명 세례, 22명 입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엡 2:19)

- | | | | | | | | | |
|----------|----------|----------|----------|----------|----------|----------|----------|----------|
| 2교구 오선미 | 3교구 김기홍 | 5교구 권서진 | 5교구 박차은 | 5교구 조경숙 | 5교구 최 솔 | 6교구 박유나 | 7교구 임인택 | 8교구 신혜란 |
| 8교구 이유림 | 9교구 박예원 | 9교구 이지예 | 10교구 김재훈 | 10교구 신재철 | 11교구 박지은 | 11교구 이양희 | 11교구 홍서진 | 13교구 이동운 |
| 13교구 이정민 | 15교구 김정란 | 15교구 신윤아 | 15교구 신홍철 | 17교구 김나현 | 17교구 차의형 | 17교구 최미정 | 18교구 영경숙 | 18교구 염수연 |
| 18교구 이상철 | 20교구 이병인 | 21교구 고영룡 | 21교구 김성규 | 21교구 이동철 | 21교구 이은정 | 21교구 정윤서 | 22교구 김애림 | 22교구 한지원 |
| 24교구 광민상 | 25교구 전승호 | 26교구 정소윤 | 26교구 홍리나 | 27교구 이주연 | 29교구 최실자 | 29교구 함경진 | 30교구 박상용 | 31교구 장동민 |
| 31교구 정유미 | 31교구 조용기 | 32교구 김미화 | 32교구 문가현 | 32교구 문나현 | 33교구 광정화 | 51교구 이준석 | 51교구 이준영 | 52교구 임 별 |
| 61교구 고유미 | 61교구 박영호 | 61교구 전성은 | 61교구 최윤식 | 71교구 구현모 | 71교구 김미정 | 71교구 김종훈 | 71교구 장연후 | 71교구 최원락 |
| 86교구 정지나 | 88교구 선우진 | 88교구 엄장운 | 88교구 이수진 | 88교구 장성민 | 88교구 정다혜 | 1교구 고은아 | 4교구 조호준 | |
| 5교구 박준성 | 6교구 유종민 | 6교구 정인호 | 6교구 정현나 | 7교구 이정대 | 7교구 이정빈 | 15교구 최영호 | 17교구 신찬욱 | 20교구 이유진 |
| 20교구 이주희 | 21교구 고예린 | 21교구 조유경 | 24교구 최현웅 | 26교구 김태훈 | 28교구 김태훈 | 31교구 최민영 | 52교구 심한솔 | 88교구 김치현 |
| 88교구 정보현 | 88교구 편서영 | | | | | | | |

담임목사 동정



- 4/13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 4/14 수요 치유의 신학
- 4/17 서울남연회 남선교회장 이취임예배
- 4/18 남선교회 리더십세미나
광림복지재단 이사회
배광교회 장로 은퇴예배
세례예식(1)
- 4/20-21 서울남연회 신임감리사,
나세남위원 워크숍
- 4/22 서울남연회 원로목사 위로회
- 4/23 서울남연회 부흥단장 이취임예배
- 4/25 새가족위원회 올터치 섬김행사
빛의숲재단 이사회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내 인생의 말씀

한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남교회에서 가게문을 일찍 열어야 하는 성도들과 아침 8시 속회를 즐겁게 인도했었다. 이사를 한 후 교구 이동의 과정에서 6개월 정도 속회 공백기를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속회가 신앙에서 정말 호호와 같다는 걸 절감하게 되었다.

교구에서 속원 2명을 맡았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이 속회가 쉽지가 않았다. 예배 한번 보기 위해 수없이 전화하고 일정을 조정하며 지치지 시작했을 때, 어딘가에 적혀있던 이 말씀이 내 마음으로 들어왔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6장 39절의 이 말씀은 ‘그러니 네가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나’ 하시는 예수님의 부탁으로 마음속에 부담스럽게 자리 잡았다. 속회인도가 힘들어질 때마다, 주님은 나 때문에 이 생명을 잃어버리시는 게 아닐까 싶어, 한번 더 전화하고 기도했었다. 그 3명이 모이던 속은 6년 만에 18명이 되어 지구가 되었고, 작년에 한 지구를 만들어 독립시키기도 했다.

요즈음도 문명의 이기인 좀 속회를 보며, 한 달에 두주는 방역방침을 지켜 2번 혹은 3번에 나누어서, 모이는 속회를 진행하고 있다.

늘 신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은 오래 오래가는 그야말로 중독성있는 기쁨을 공급해주시며, 따뜻하고 세밀하게 도와주신다.

속회뿐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가 생겨 삶에서 털어내고 싶을만큼 힘겨워질 때도,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주님이 잃어버리는 생명이 되거나 늦게 구원되는게 아닐까 싶어 목구멍까지 밀려오는 마지막 말을 내뱉지 못하기도 했고, 절대 내 마음이 아닌 말을 억지로 하기도 했었다. 물론 나는 수없이 넘어진다. 말씀 전에 내 말과 마음이 먼저 나와버려, 나 때문에 시험 들겠네 싶은 일도 다반사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어려운 일이기도하다.

광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 지 이제 30년, 개체선교회총연합회 시작하여, 작년부터는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다. 특별한 영성도 재주도 없는 내게 이 일을 맡기실 때도 주님은 같은 부탁을 하신다고 믿는다. 이 시간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주님이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게 돕는 일에 쓰임받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서로 돕고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이화열 권사 (여선교회총연합회 회장)

生生
생생 속회 (52회)
11교구 43속

광림 30년 지기, 속회 통해 새로운 꿈을 꾸다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매주 빠짐없이 예배드리는 속회가 있다. 4선교구 11교구 43속 (속장 오진희 권사)이다. 43속은 위례 신도시 지역으로 지난해까지는 많은 인원이 함께 속회를 드렸지만,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올해 초 4명으로 분속했다.

“혹시라도 반대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선뜻 속회 드리자는 얘기를 못했어요. 어렵게 꺼냈는데 모두가 예배드리기를 원하셨어요”라고 속장 오진희 권사는 말문을 열었다. “속원 모두가 30년 이상 광림교회를 섬긴 광림지기예요. 신앙의 연륜이 저보다 훨씬 깊음에도 부족한 저에게 귀 기울여주세요. 작은 기도제목에도

마음을 다해 증보하고 기도 응답에 감사하며 함께 기뻐하다 보니 늘 같이 울게 돼요. 그 눈물이 저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나 봐요.”

설레는 맘으로 기다리는 속회

지난 고난주간 43속 속원들은 광림수도원을 찾았다.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기도공원에 오르며 각 기도 처소에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속원이 말씀을 읽고 기도했다. 때마침 만개한 벚꽃 아래를 거닐고 예배소광장에 앉아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적이 드문 탓에 공원 곳곳에 낀 이끼를 닦아내며 마음 한 편이 아파왔음을 고백했다.

속회의 만연니 최희숙 권사는 “예전엔 집집마다 다니며 속회를 드렸어요. 지나고 보니 그때가 저의 믿음도 교회도 큰 부흥이 있었던 거 같아요. 제 나이 77세입니다. 다시 가슴 벅차고 설렙니다. 속원들과 같이 갔던 수도원이 너무 좋아서 평소 전도하려고 품었던 분들을 모시고 수도원에 또 갔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을 보여드리고, 식사와 맛있는 차를 대접하며 꼭 우리교회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첫사랑을 회복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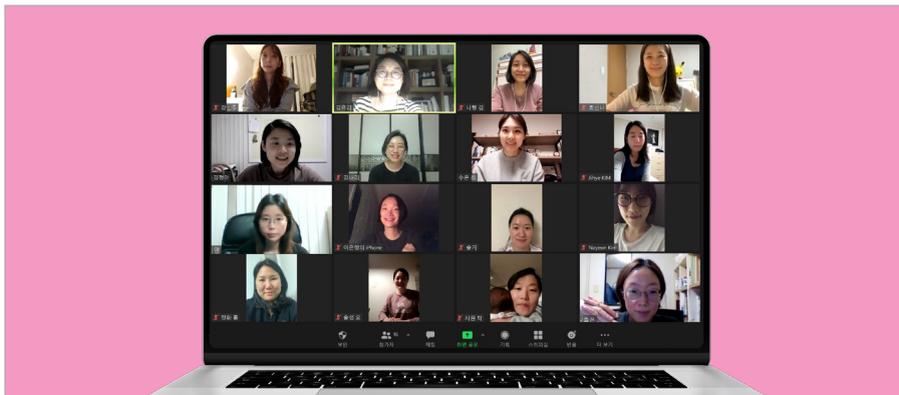
최순환 권사는 “매주 속회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30년을 한 교구에 있다 지난해 위례로 이사 왔어요. 나이가 들어 새로운 곳에서 누군가를 사귄다는 게 쉽지 않은데 실족할 수 있는 저를 붙잡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창세기 말씀을 파헤치며 열정을 다해 전하시는 속장님,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주간 부딪혔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속회는 제가 다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해주셨고 주님을 위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라고 했다.

정수정 집사는 “믿음의 선배이며 인생의 선배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속회를 통해 중보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소소한 것까지 기도 부탁을 해요. 개인적으로 언니가 없다보니 세 명의 언니가 생겨 든든하고 속회 안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워요. 가족보다 더 가족 같아요”라며 웃는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허락하신 가정에서 믿음의 아내와 엄마로

<청장년부> 마더와이즈 - '자유'



지난 4월 5일 주일을 시작으로 청장년부 자매 16명은 8주간의 마더와이즈 성경공부 교재로 '자유'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저희 청장년부 지체들은 공동체 모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모여서 예배하고 만나서 깊은 교제 나누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저희를 마더와이즈를 통해 특별하게 모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밀하게 말씀해주시며 서로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지금도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마더와이즈 교재를 통해 각자의 자리

에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각자가 묵상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말씀에 비취주신 현재 각자의 삶의 모습과 어디에도 말하지 못했던 지난날의 상처들을 돌아보며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 솔직한 고백과 나눔을 통해 서로의 상황을 자세히 알게 되었고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 일주일에 한 번 주일 밤 zoom 온라인 모임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자매가 모여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증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재워야 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해야 하는 분주하고 피곤한 시간이지만 모두가 사모하는 마음

으로 빠짐없이 모이고 있습니다. 직접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마스크 없이 밝은 얼굴을 보며 교체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은혜로운지 자매들의 밝은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가 됩니다. 저희의 상황과 형편은 모두 다르지만, 젖먹이까지 세 자녀를 돌봐야 하고, 워킹맘으로 일터와 가정을 오가며 여력이 없는 형편에서도 밤잠을 쫓아가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엄마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수록 더욱 지쳐만 가는 연약한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게 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계속 이야기해주십니다. 저희는 저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친히 그 역할을 감당해주시길 소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말씀처럼 마더와이즈 '자유' 8주 과정을 통해 함께 하는 모든 자매가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믿음의 아내와 엄마로 새롭게 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김유리 집사(청장년부)

상반기 총력전도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서'

청년부 <TETRIS> 빈칸을 채워줄 너의 이름은?!



광림교회 청년부는 4월 11일(주일)부터 5월 2일(주일)까지, 4주간 총력전도를 진행합니다. 이번 상반기 총력전도는 주제는 'TETRIS'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버린 청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속회별로 함께 기도하며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청년부는 4주 동안 속회별로 4가지 미션을 수행합니다. 1주차(4/11)는 TExt(편지를 쓰다)입니다. 속회

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한 영혼을 찾고 VIP의 이름으로 삼행시를 짓습니다. 삼행시는 신앙 회복을 권면하는 메시지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카드 뒷면에 손편지를 씁니다. 2주차(4/18)는 TReasure(선물을 준비하다)입니다. 전화심방과 SNS를 통하여 VIP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정보를 수집한 뒤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께서 지혜를 구함으로, VIP가 원하는 선물을 구입합니다. 3주차(4/25)는 Interact(교제하다)입니다. 속장님과 속원들이 함께 VIP에게 찾아가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 동안 준비한 선물과 편지, 주일 5부 예배(5/2) 초청장을 전달합니다. 마지막 4주차(5/2)는 Shift(예배의 자리로 이동시키다)입니다. VIP를 주일 5부예배와 속회의 자리로 초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김무성 속장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교회로 나오는 게 어려운 그들에게 속원들과 함께 기도하며 직접 집 앞으로, 직장으로, 알바의 자리로 찾아가서 같이 시간을 보내려 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라는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LFC 예배의 자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의 자리가 되며, 주님 주신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날을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라고 나누

었습니다. 성육제 속장은 "이번 청년부 테트리스를 통해 VIP회복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떠나 있는 속원들과 함께 누리고 싶고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며 내면 깊은곳에서부터의 회복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꼭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라고 기대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광림교회 청년부는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4주 동안 속회별로 총력전도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이 기간을 통해서 LFC 청년들이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음으로 우리 주님께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진선규 전도사(청년부)



신앙 간증

동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 받고 싶은 청년1교구 속장 김남주입니다. 먼저 간증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마음속에 새기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혼구원과 제자삼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받았던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먼저는 '우리과 언제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은혜'입니다. 속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 연락을 하고 밥도 사주며 시간을 내어 속원들과 많은 공감을 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가끔은 속원들을 위해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값없이 받은 구원의 선물을 떠올리게 하시고 다시 기도하며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1년 조금 넘는 시간이 되돌아보니 제가 속원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삶을 궁금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것을 궁금해 하고 함께하고 싶으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너의 삶에 진짜 고민은 무엇이니? 어떤 걸 할 때 기쁘니? 지금 너의 마음은 어떠하니? 네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니? 무얼 보고 있니?' 등등 우릴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자리, 먹고 있는 것,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감정과 주어진 상황들을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작은 부분까지도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니 평안과 기쁨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동행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은혜'입니다.

영혼구원에 대한 관심은 교회 뿐 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에서도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가정에선 아직 훈련 되어야 할 부분이 많지만 말과 행동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하게 하도록 변화 시키셨습니다. 일터에서의 변화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미술교육'에 비전을 품고 있던 저에게 '책 읽는 루브르아뜰리에'라는 프랜차이즈 미술교육기관 송파센터 오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예수님처럼 변화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미술을 통해 아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기 위해 주신 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속회와 가정 일터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며 많은 이들이 주님 품 안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도록 주님 부르시는 그 날까지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가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 김남주 속장(청년부)

선물도 받고, 예배도 회복하는 천국잔치

5월 2일 어린이 주일, 시온 페스티벌(Zion Festival)



광림교회 교회학교는 5월 2일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시온 페스티벌(Zion Festival)을 펼친다. 당일 교회학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각 부서별로 연령에 맞는 선물을 담은 시온팩을 제공한다. 시온팩은 1부(09:00), 2부(11:00), 3부(14:00) 교회학교 예배 현장에서 증정한다.

또한 밀레니엄 공원 중앙과 교회 정문 앞에 설치된 워킹스루, 사회봉사관 주차장 앞의 드라이빙스루에 방문하는 모든 어린이들에게도 주황색 티셔츠를 입은 교회학교 선생님이 LED 비행기를 선물한다. 증정 시간은 1부(09:20~11:00), 2부(11:20~13:00), 3부(15:40~17:00)로 나뉘며 교회에 처음 오는 친구들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시온챌린지는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드라이브스루로 행사가 진행되어 예배의 발걸음만으로 만족하는데 그쳤다. 올해 시온 페스티벌은 교회를 향한 걸음을 넘어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여 시온의 대로를 다시 세워가는 전환점을 목표로 진행된다. 백다운 어린이(초등1부)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많이 없어요. 교회에 가면, 예수님도 만날 수 있고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시온 페스티벌이 정말 기다려져요"라며 행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교육국 정성민 기획 전도사는 "코로나 시대가 장기화됨에 따라 다방면으로 억눌려 있던 아이들이 주일예배에 온전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으며 함께 천국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온 페스티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시온 페스티벌 사전 신청 및 참여 방법은 각 부서에서 온라인으로 발송된 구글 설문 시트에 요청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전 신청을 하지 못했더라도 당일 교회학교 예배와 교회 각 선물 부스에 방문하면 선물을 받을 수 있다.

문의: 광림교회 교회학교 02)2015-1178

✚ 박희윤 기자 ygygp@naver.com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마 18:5)

"주께 힘을 얻고 그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시 84:5)

하나님이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따라서

<광림남교회>

복된 확증, 복된 사명

- 목회현장 -



김대영 목사 (청장년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 현장을 통해서 때에 따라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요즘은 한 몸으로 부르신 청장년부를 통해 진리의 말씀과 삶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 속에서 청장년 지체들이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보면 존경의 마음에 박수를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청장년부는 만 35~40세까지의 중요한 생애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지체들로 구성된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이 시기는 개인과 가정에서 결혼과 출산, 자녀와 부부 관계 등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관계를 이루고, 적응하며 삶으로 받아들이는 시기입니다. 또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직장 and 일터에서 세상의 도전 등을 겪어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1년에 청장년부는 'We are CHURCH'라는 슬로건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공동체를 세움 받기 위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죽기 살기로 성경 읽기'를 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삶을 읽어 나가고, 또 '일과 영성'과 '마더와이즈'를 통해 일터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법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이 문제와 더욱 치열하게 싸우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기본기와 삶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 사이에서 때로는 갈등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청장년 지체를 심방할 때 부탁하셨던 기도 제목이 인상 깊었습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멋진 신앙인일 뿐만 아니라, 일터에서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일주일의 6일을 교회 밖에서 생활하는데,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잖아요." 또 맡겨진 일을 하나님의 부르심(veruf)으로 여기며 "일터에 예배를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체들, "목사님, 힘들지만 가정 예배를 세우고 있어요.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라며 다짐하는 가정들을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진리는 어느 상황과 환경, 시대를 넘어 능력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이 삶의 무수한 변화를 겪는 시기를 보내는 청장년부 지체들의 삶에도 거룩한 기초가 될 줄 믿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는 모습을 소망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에서 집사, 권사로 어느덧 14년의 시간을 보내며, 부족하지만 속장, 지구장, 선교회장, 경조회장, 교구장을 맡아 주의 일에 헌신해왔습니다.

뜨거웠던 신앙이 식을 때쯤, 새벽예배를 통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늘 마음속에 나의 달란트,



사명이 무엇인지 아버지께 묻게 되었습니다. 그때 전도와 중보기도자라는 감동을 주셔서 다니엘기도회, 총력전도, 노방전도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노방 전도를 하지 못하게 되어 불안하고 염려되었던 때에 52교구 전도팀이 다시 동백에서 노방

전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전도지를 만들며 전도했을 때, 비록 보는 시선이 따갑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잘 받아주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지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두려움과 염려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아버지께서 애통해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며 다시 노방전도로 뛰어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광림교회입니다!"

오늘도 매순간 나와 동행하셔서 내 입술을 통해 복음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명미 권사(광림남교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광림서교회 교회학교 트리니티>



광림서교회 교회학교는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4주간 교회학교 트리니티를 진행했습니다.

주제는 <성령의 열매>(갈 5:22~23)로 온라인을 통해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에 대해 배우고, 가정에서 미션을 수행하며 삶에 적

용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었습니다.

트리니티에 참여한 아동부 박규리 학생은 "트리니티를 통해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에 대해 자세하고 꼼꼼하게 배웠습니다. 어렵



다고만 생각했던 성경의 이야기를 4주에 나누어 배웠더니 이해하기 쉬웠고, 배운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김은애 교사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으로 말씀을 외우며, 미션 활동들을 통해 쉽고 즐겁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참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나무의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나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조아라 전도사 (광림서교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

<광림북교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4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창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 전도 대상자를 품고 뜨겁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기도회로 모이지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무력하게 시간을 보냈던 것을 돌아보며 마음의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

셨는데... 더 이상 주저앉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KF94 마스크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다시 전도하기 시작했고, 전도의 열기가 점차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북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트리니티 성경공부를 마친 후 전도의 현장으로 나섭니다. 담임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거리로 달려나갑니다. 때로 피곤하고 지칠 때도 있지만, 전도할 때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동참해주시는 우리 북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광림북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분당에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조양식 전도사 (광림북교회)

<광림아트센터> 문화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끈다

광림아트센터는 문화로 교회와 세상을 잇는 가교 역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문화선교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장천문화선교위원회(위원장 신성수 장로)가 운영하는 광림아트센터에는 뮤지컬전용 대극장 BBCH홀과 클래식 중극장 장천홀이 있다. 콘텐츠의 한계를 두지 않고 공연문화 발전과 지역 사회의 문화공간으로 연간 600회 이상의 공연과 25만 명 이상의 관객이 찾고 있다. 세계적으로 1,000석 이상의 뮤지컬 전용극장과 600석 클래식 공연장을 운영하는 교회는 광림교회가 유일할 것이다. 광림아트센터는 숲 속에 타는 불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BBCH홀에서는 2016년 부활주간 특별 뮤지컬로 '마리아 마리아 - 패션 오브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공연한 바 있다. 성경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를 상상력을 가미해 재창조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마리아'와 예수님을 만난 후의 '마리아'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구원과 회복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가 녹아 있다.

2021년 5월 세계적인 스테디셀러 기독교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공연이 BBCH홀에서 예정되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 겨울 크리스마스 시즌 작품으로 공연될 예정이다. 1971년 브로드웨이에서 시작된 후 50주년을 맞은 이 작품은 예수님의 마지막 7일 간을 유다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파격적인 재해석으로 록 음악과 클래식을 결합한 작품이다.

미국 뉴욕의 프라미스교회가 'His Life(예수님의 생애)'를 제작해 브로드웨이에서 뮤지컬 공연을 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듯이, 광림성곡위원회(위원장 박영준 장로) '파워크리스천'도 BBCH홀 전문 스태프들과 함께 깊은 울림과 감동으로 그리스도의 향기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고마워요 아빠', '안녕하세요 예수님!', '늙은 도둑 이야기' '과락호' '빈 방' 등 예수 중심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청년들의 의미 있는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광림아트센터는 일반 공연과 함께 수준 높은 기독교 작품을 찾아 무대에 올리며 문화선교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상희 기자 shlh616@naver.com](mailto:shlh616@naver.com)

BBCH 홀

BBCH홀은 2013년 11월 1일 1,006석의 뮤지컬전용 대극장으로 개관했다. 광림교회 사회봉사관 7~9층에 위치해 있으며, 무대로부터 객석 맨 뒤 좌석 간의 거리가 21m 내외로 최적의 공연 관람 조건을 갖춘 극장이다. 연습과 오디션 등이 가능한 2개의 Studio 시설은 공연 제작과 연습에 몰두할 수 있도록 최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 BBCH홀은 국내 창작 뮤지컬의 활성화와 공연계 발전을 위해 국내 최고의 명품 뮤지컬 전용 공연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개관작 '아가씨와 건달들'을 시작으로 국내 창작 뮤지컬 '설록홈즈 2', '서편제', '신홍무관학교', '마리아 마리아' '베르테르' 등과 해외 라이선스 '아마테우스', '아이언 마스크', '에드거 앨런 포' '오! 캐롤' '시라노' 등을 공연했다.



장천 홀

광림교회 웨슬리관에 위치한 장천홀은 2004년 4월 개관 이후 2005년 11월 리모델링을 통해 양질의 음향과 잔향을 갖춘 613석의 국내 최고의 어쿠스틱(Acoustic)클래식 중극장으로 독창, 독주, 실내악, 합창, 오케스트라, 연극, 오페라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지는 복합문화 공간이다.

세계적인 아카펠라 그룹 킹스싱어스, 시카고합창단, 라이프치히 미하엘리스 콘서트 등 세계적인 공연과 오페라 '투란도트', '라보엠', '라 트라비아타' '요술피리', 연극 '라이어', '장수상회', 블라디보스톡오케스트라 초청 '강남국제음악제'공연, 오전11시 마티네 연주회 등 수준 높은 공연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광림교회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해 기독교 영화를 상영하고 선교 음악회, 사랑부 공연 등 문화선교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문화인들이 사랑하는 광림아트센터

광림아트센터 BBCH홀은 대한민국 창작 뮤지컬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공연장입니다. 대부분의 대극장 공연장은 외국 라이선스 작품 위주의 공연들을 선보였지만 광림아트센터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창작 작품을 위주로 올리는 중소형 제작사에게 많은 기회를 주었고, 그로 인해 양질의 창작 작품들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교통이 편리해 관객의 접근성이 좋으며, 최신시설로 극장 컨디션이 매우 쾌적하고 연습실 역시 배우들과 관계자들이 선호하는 공간입니다. 어려운 시절 공연 제작자와 참가하는 많은 관계자들에게는 더욱 그 가치가 높게 평가받으며 문화 전도사로서 그 역할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광림아트센터 BBCH홀과 쌓아온 인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라인업 또한 광림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은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인들의 마음일거라 생각합니다. 광림교회에서 좋은 극장을 지어주시고 운영해주시는데 대해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지나 | 중앙대학교 연극학과 교수(뮤지컬 연출가)



3 박관순 사모

박관순 사모는 김선도 목사를 만나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다짐으로 1960년 부부의 연을 맺었다. 60여 년간 김선도 목사와 러닝메이트로 지내오며 “예수님 덕분에 그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난 김선도 목사를 통해서 전도하게 되고, 목회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키게 된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서울신학대학교 명예 신학박사, 광림교회 여선교회총연합회 고문, 광림복지재단 이사, 서울장학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래는 박관순 사모의 글 요약본이다.

처음 만난 김선도 전도사는 초지일관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교인들밖에 모르는 목사,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추구하는 것이나 목적하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일제 강점기의 식민통치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자라온 환경이었지만 남편은 자신의 유년 시절을 두고 ‘영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웠노라고’ 말씀하곤 한다. 지금도 시절을 닦하는 법이 없다. 매번 긍정의 요소를 찾아내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필코 발견해 내어야 마는 사람이다.

오직 순종으로 운명을 뒤집고 사명으로 살다
나는 서울대학교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병원업무를 마친 새벽이면 반드시 새벽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귀가했다. 철원에 갔을 때에도 새벽예배에 참석했다. 그리고 그 새벽에 시부모님을 만났다. 시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우리는 남편의 은사이신 홍현설 목사님을 주례목사님으로 모시고 아현감리교회에서 혼례를 올렸다.

신혼살림을 시작한 집은 교회다락방이었다. 처음 가서 보니까 몇 평 남짓한 다락방 안에는 의로기기, 약병 등으로 한가득 채워져 있었다. 목회의 길에 들어서기 전에 차렸던 병원에서 그대로 옮겨다 둔 것이었다. 신기하게도 그런 풍경이 내겐 낯설지도, 남루해 보이지도 않았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남편의 모습에 공홀한 마음이 솟아 나왔고, 여기서 시작하자고 외치는 듯 한 진정어린 속내가 들여다보여 내심 감사했다. 다락방에서 첫발을 내디디면서 알게 되었다. ‘내 남편과의 신혼살림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의 시작이로구나’ 라는 것을 말이다.

영혼의 허기를 채우시는 불성령의 체험
나는 고등학교 3학년시절에 불성령을 한차례 체험했다. 그리고 훗날 미숫가루를 타고 수유통을 만들어서 포대기에 아들을 둘러업고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그 자리에서 두 번째로 불성령을 받았다. 늘 수많은 책에 파묻혀 있던 남편도 영혼의 허기를 느끼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다. 한마디 말도 없이 어딘가로 갔다 치면 어김없이 기도원에 있었다. 기도원이란 기도원은 다 찾아다니며 기도했다. 우리 부부는 아이들을 재우고 깊은 밤중에 교회 뒷동산의 공동묘지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기도 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역전시키는 전적인 투신
남편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있는 기간 동안 우리 가족은 셋방살이를 했다. 집주인의 잔소리에 더해 후생주택을 구입하며 꾀박도 많이 받았다. 그런 연후에 광림교회에 부임하고 보니까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다. 재정적으로는 많은 빛이 있었고, 교회건물은 노후해서 손봐야 할 곳이 많았다. 교인들은 무슨 말을 해도 불가능이요, 무슨 일을 해도 불가능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남편은 불가능을 뒤엎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막 9:23)는 말씀을 강력히 외치기 시작했다. 15평 남짓했던 후생주택도 아낌없이 팔아 교회의 빛을 갚는 데 모두 바쳤다. 누구보다 앞서 스스로가 투신하니까, 남편 한 사람이 움직이면 모든 성도들이 따라왔다. 한 사람의 헌신과 확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남편은 목회의 모든 순간 행함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폭넓은 포용력과 과감한 결단력의 조화
남편은 오직 오늘의 사람이다. 언제나 오늘을 마지막처럼 살고 있다. 미국 유학을 가셔도 오늘이었고, 광림교회에서도 늘 오늘을 살고 있다. 남편은 듣는데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말하는 사람에게 아쉬움이 남지 않을 정도로 전부 듣는다. 예수님이 남편의 중심에 계시고, 자신의 생활과 마음 전부를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극정성으로 전부 쏟아 넣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나에게도 수미일관(首尾一貫) 똑같다. 여전히 내 남편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지만, 아내인 나의 말에는 일 점도 흔들림이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남편이 나를 의지하는 때가 있으니 바로 기도하는 순간이다.

낡은 교회가 허물어지고 오랜 구습도 함께 무너져 가다
남편은 설교 단상에 올라가면 성령의 두루마기를 휘감은 듯 강력하게 확신 있는 비전을 선포하고 성도들의 잠든 영혼을 깨우고,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 평일에는 전도에 전도, 또 전도를 했다. 500석의 예배당에 150여 명이 출석하던 교회가 어느새 교인들이 500명을 넘어섰고,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1천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되었다. 주일이면 새 가족들을 맞이하며 행복한 분주함을 누리게 되었다. 성령의 바람이 뜨겁게 몰아치자 교회가 급변하기 시작했고, 지은 지 20년 가까운 세월동안 낡고 부서지기 시작한 교회건물을 보면서 건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결정했다. 장로님들 몇 분씩 짝을 지어 기도하며 강남의 배밭 몇 필지를 둘러보며 마음을 모았다. 남편의 설교에 은혜 받은 교인들이 부흥의 현실을 맞이하니까 너나없이 자발적으로 교회 건축에 팔을 걷어 붙였다.

한 손에는 성경을, 그 어깨에는 쌀자루를 짊어진 목사
남편 목회의 훌륭한 면 가운데 하나가 시간을 초 단위로 쪼개고 또 쪼개면서 사용하는 것이다. 남편은 아낌없이, 그리고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교인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남편은 교인들에게 그렇게도 후하다. 어떤 사람이 방문해도 그 분 그림자가 사라지기까지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 몇 차례씩이나 작별 인사를 나누었으면서도 또 인사하고 다시 손을 잡는다. 교인들을 영적인 자녀로 대하고 섬기는 남편의 모습이 어떤 경우에는 이삭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때로는 우리 가족 쌀독이 텅텅 비어 가는 것은 전혀 모르면서 교인 가정의 수저 개수를



▲ 2013년 김선도 감독님(문학), 박관순 사모님(신학) 명예박사 학위 수여식

모르면 불같이 역정을 내곤 했다. 칼 바르트는 “목사는 한 손에는 성경을, 다른 한 손에는 신문을 반드시 들고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내 남편은 한 손에는 성경을 그리고 그 어깨에는 교인들을 위한 쌀자루를 짊어지고 목회를 했다.

눈물 쏟으며 기도하는 아버지이자 대제사장
자식에 대한 사랑처럼 감리교 후배 목사들에 대한 사랑과 정성도 자식 사랑 그 이상이 었다. 감독직을 수행하는 모든 기간에는, 희생 없는 예배는 죄라면서 스스로 헌신을 재촉하며 일거수일투족 겸손에 힘썼고 감리교를 위해 무얼 희생할까 골몰하기만 했다. 자녀들은 물론이고 그 많은 목회의 후배들은 내 남편에게서 은화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눈물로 기도하신 것처럼 남편도 새벽제단에 엎드려 무르팍 쓸어가면서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아버지요, 목사라는 것이다.
남편과 나는 평생을 마른수건을 적서하며 기도의 눈물을 많이도 쏟았다.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듯 기도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기도를 통해서 추위를 이겨낸 꽃을 피웠고 무더위를 견뎌낸 열매를 맺었다.

정리: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